역사속에 잊혀진 인물

기획시리즈 〈1〉 총론

先반일 後민주—민족수호의 기수

오욕의 역사를 왜곡된채 간직하는 민족은 불행하다. 해방이후 우리는 왜곡된 역사를 이끌어온 채 반세기를 보냈다.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위업은 여전히 사회주의자에겐 빠타적이다.

본 기획시리즈는 누구보다도 민족의 해방을 위해 투쟁했지만 다른 이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속에 사장될 수 밖에 없는 인물을 발굴하고자 한다. 그러나 단순한 인물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 시상이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에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각 인물은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의 각 국면마다 중요한 위치는 점하는 인물을 선정했으며 이동휘, 김사국, 차금봉, 이재유, 박일, 허정숙, 이기영이 다음주부터 차례로 연재된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편집자 註〉

1. 머리말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에 억압당한 35년 동안 쉬지않고 계속 반일운동을 조직·전개하였다. 반일운동의 방법론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교론에서 개인테러 또는 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실천형태를 취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그 나름의 독특한 이념적 기초가 있었다. 그 스펙트럼은 대단히 다양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근대적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다양한 이념들은 우리 민족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적응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이론을 창출하였다. 예를 들어 아나키즘의 경우 국가의 '파괴'이전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제1차적 과제로 제시하고 활동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반일독립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했기 때문에 북만지방에서 '한족총연합회'라는 독립운동단체도 1929년에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족총연합회는 김좌진 장군이 이끌던 신민부 군정과와 아나키스트인 김종진이 연합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의 결합은 당시의 시대적 산물인 것이다. 또한 이글에서 다루려는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반일독립운동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2.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의 전개과정

1. 사회주의운동의 발생기(1919년—1925년)

반일지사들은 1900년대 의병운동과 자강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와 노령지방에 집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억압과 수탈을 피해 수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만주에 이민가기 시작하였다. 결국 1910년대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은 만주와 노령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가운데 일부는 볼셰비즘의 영향을 받고 이념적으로 이를 수용하기도 하고, 시베리아 지방에서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백군세력을 물리치는데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후 대부분은 '상해파'와 '이루쿠츠크파'라는 정치세력으로 응집하였다. 이런 기회에서 다루는 이동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관을 전환한 사람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3·1운동이 전민족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즉각적인 독립은 쟁취할 수 없었다. 운동의 실패 이후, 국내와 만주 등지에 살고 있던 청년학생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들은 금주·금연 등을 통한 심력양성을 주장하는 사람에서부터 다른 이념과 혼재된 맑스주의를 외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그런데 다수의 청년지식인들은 볼셰비키 세력들의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때문에 노동자, 농민에 관심을 돌렸으며, 노동자, 농민의 이해에 기초한 반일 운동 즉, 소작쟁의와 파업 등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일상적 경제투쟁에 기초한 반일역량의 조직화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소작인조합과 노농조합 및 청년단체가 1920년대 전반기에 급속히 결성되는 것은 여기에 그 원인의 일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광범한 대중운동과 사회주의이념에 대한 관심의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대중운동 단체인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청년총동맹이 1924년 4월에 결성될 수 있었다. 그것은 사회주의 이념의 대중적 조직화의 첫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청년지식인층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새로운 대안으로 여기고 관심을 두었던 원인은 1920년대 전반기 우리 민족을 둘러싸고 전개된 일련의 내외적 사건과도 관련이 있었다.

또한 만주의 경우 1920년 10월 일제의 '경신년 대토벌'을 피해 많은 무장독립운동 세력들이 소련으로 넘어갔다. 그러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고 만주로 되돌아왔다. 만주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는 이때부터 본격화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3·1운동 이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던 청년지식인들은 1922년의 사기공산당사건(소련이 지원한 지금을 누가 사용했는가?), 한말 개화파의 한 사람이기도 했던 김윤식의 장례문제에 대한 논쟁(사회장 여부), 1923년 물산장려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관한 논쟁(민중본위 여부), 1924년 1월 이광수가 '동아일보' 사설에 '민족적 경륜'을 발표하여 자치를 주장한데 대한 비판과 '동아일보' 불매운동 등의 과정에서 점차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논쟁과정은 청년인텔리층으로 하여금 국내외의 모든 사회주의 세력을 포용한 것은 아니었다. 국내에서 성장한 청년지식층을 중심으로 결집한 서울청년회 계열과 주로 만주지역에 있던 상해파세력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청년회 계열은 1924년 10월에 그들만의 비밀결사조직을 결성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하여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에는 두개의 중심축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때로는 협력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격렬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띄었다. 그 단적인 예가 1925년 봄 조선공산당에서 개최하려 했던 민중운동자대회를 둘러싼 양파의 대립이다. 당시 전국의 사회주의 지향의 단체들 가운데 1천여 단체가 대회참가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하며 서로 대항회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신간회 결성을 전후한 과정에서 어떠한 반일민족통일전선체를 어떻게 결성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주의세력에 커다란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경쟁을 위한 경쟁, 비판을 위한 비판과 다른 차원이었다. 논쟁의 핵심은 노동자계급 헤게모니를 조직적으로 담보하는 과정에서 광범한 반일운동역량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였다. 논쟁의 결과 조선공산당은 양당본(兩黨論) 청산론(淸算論) 등의 기회주의적인 이론을 배격하고 신간회를 사수할 수 있었다. 즉 1928년 3월 조선공산당은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테제'에서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특징을 반제반봉건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으로 성격규정하였다. 그리고 운동의 진행과정에서 부르조아 고시키는 한편, 노동, 농민, 청년운동이 재편되는 양상을 띄었다. 즉 기존에는 소작인은 농촌의 노동자라는 논리아래 소작인조합 속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함께 조직하였다. 그러나 실제 실천과정에서 두 계급은 성격이 다르며 이에 따른 운동전술이 판이함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26, 27년에 이르면 노동운동 조직의 분리와 군부(郡府)단위로의 재조직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27년 9월 조선노동총동맹을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분리시킨 것은 그 최종적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리, 동, 면 등지에 흩어져 있던 각종 청년회 조직을 군(郡)단위 중앙집권적인 청년동맹으로 재편하였다. 청년동맹은 과거 계급협량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민족적 청년층까지 망라한 조직으로 변모하고자 하였다.

대중운동의 재편과정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요구조건들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농민운동의 경우 1920년대 전반기에는 소작료 인하, 소작권이동 반대 등의 구호만이 제출되었다면, 후반기로 갈수록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을 반대하는 구호가 제출되었던 것이다. 당시 그 가운데 가장 광범하고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 수리조합 반대운동이다. 이러한 성격의 운동은 대중이 일상적 생활과 활동과정에서 스스로 자각한 결과이다. 동시에 1920년대 후반기 들어 대중운동 영역이 확대되었을 뿐만아니라 일상투쟁에서 정치적 성격의 반일운동이 제기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당시 사회주의 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조직적 결집체인 조선공산당이 4차례 검거되어 핵심 지도역량을 소실당했다. 또한 이 시기 대중운동 지도자들은 일제의 탄압을 두려워하며 합법주의적인 운동노선을 견지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내외적 요인은 사회주의자들을 대중과 결합시키는데 한계점을 노정하게 하였다.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1930년대 들어 본격화된다.

3.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 2(1929년—1930년대 중반)

일제의 탄압과 우경적인 대중운동 노선으로 인해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은, 1928년 12월 코민테른의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일명 '12월 테제')를 계기로 새롭게 거듭난다. 즉 노동자 농민에 기초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여 일제를 물리치고 소비에트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대중속으로 들어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활동가들은 이를 위해 공장과 농촌속에 직접 들어가 8시간노동제, 임금인상, 소작료인하 등의 구호와 함께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는 반일구호를 명확히 제출하고 노동자 농민대중을 전투적으로 지휘하였다. 1930년의 부산방직노동자파업, 신흥탄광 노동자파업, 단천농민조합의 삼림조합 반대투쟁 등을 그 보기로 들수 있다. 이러한 투쟁들에서는 이전의 파업 또는 소작쟁의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 즉, 노동자 농민대중들의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자세와 행동을 발전할 수 있다. 실제 단천농민들의 경우 면사무소를 습격하기도 하고 명천에서는 '해방구'의 상황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당시 노동·농민운동에서는 '토지를 발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토지분배 구호와 '피고용농민에 대한 계급적 착취와 억압의 폐지!'와 같은 계급철폐를 주장하는 구호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대중운동과정에서 노동자 농민을 조직속에 담아내기 위해 산업별 원칙아래 맑스레닌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혁명적 대중조직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로는 태평양노동조합에서 파견되어 원산, 함흥, 흥남, 평양, 경성 등지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다 1929년부터 1933년경까지 4차례 검거된 '태평양노동조합사건'이 대표적이다.

대중적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려는 실천은, 결국 1930년대 초반에 이르러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대중운동이 국내와 만주에서 반일운동의 주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게 하였다.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이르러 이처럼 급격하게 '대중운동이 고양되었던 것은, 1929년 세계경제공황으로 인한 국내와 만주 등지에 농업공황 때문이었다. 그것은 민중들에게 생존의 문제를 첨예하게 던졌던 것이다. 또한 당시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좌경적 분위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주의 경우 토지혁명과 부장폭동 등으로 대별되는 이림삼노선으로 표현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토지혁명과 민족부르조아지 반대 모든 지주의 토지몰수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것은 계급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이다.

때문에 1930년대 중반경에 이르러 국내의 경우 대중운동이 급격히 쇠퇴하며, 만주의 경우 조선인의 중심지역이었던 간도지역에서 항일유격전쟁을 전개할 수 없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계급편향의 운동방침과 실천은 1935년 7, 8월에 열린 코민테른 제7회 대회의 반제인민전선방침이 전달되면서 점차 극복될 수 있었다.

4. 사회주의 운동의 쇠퇴(1930년대 중반—1945년 8월)

반제민족통일전선방침이 국내와 만주에 전달되자 소비에트 혁명노선에 입각한 운동방침은 수정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 후반기에 활동가들은 소비에트정부 건설방침을 취소하고 '항일구국정부', '인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민족부르조아와의 동맹을 강조하는 등 일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결합하고자 하였다. 1936년 정백현 중심의 '재만조선인 조국광복회'의 결성과 활동이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일제가 국내와 만주의 지배체제를 전시동원체제로 전환한 시기였다. 따라서 그 탄압의 강도는 대단히 강고하였다. 이에 반해 활동가들은 앞선 시기의 좌경적 실천으로 정세를 주동적으로 장출한만한 자기 역량을 구비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정세는 활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소규모 역량을 유지·보존하면서 내외정세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 국내의 운동은 소그룹화(예:1939—41년의 경성콩그룹, 1944년의 공산주의자협의회)되어 갔고, 만주의 경우 소부대단위의 전투로 전환되어 갔던 것이다.

3. 결 론

역사적인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과제가 무엇이었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식민지시대 우리민족의 최대 과제는 독립이었다. 앞서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당시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운동은 반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활동하였다. 따라서 마땅히 정당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는 이들을 포용하는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할 문제이지 배타적인 자세는 아니다.

신 동 철

〈한국역사회회원〉

◇29년 원산 부두 노동자의 파업 광경 20년대말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투쟁적인 모습으로 전개된다.

파벌다툼, 계급강조 결과 한때 좌절 겪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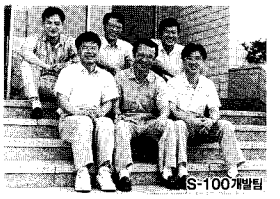
민중생존·구국의지 뿌리내린 정통성 인정돼야

21세기를 여는 현대의 첨단기술 — 그 주역을 찾아서(현대로보트산업편)

— 스폿 용접 로보트 S-100개발 —

미래기술의 총아 ——

인공지능로보트의 꿈을 가시화하다!



S-100개발팀

인간처럼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보트—
더 이상 공상과학소설의 소재나 아득한 꿈이 아닙니다.
세계의 로보트산업은 벌써 음성인식을 넘어서
초기 인공지능 로보트의 개발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얼마전 까지만해도 산업용 로보트마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로보트산업의 불모지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로보트산업에 뛰어든 우리는 우선
산업용 로보트의 자체개발로 첨단 로보트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숱한 실패와 좌절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SPOT용접 로보트의 자체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최초의 자체개발이라 자문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보다 개발기간을 반 이상 단축한 현대 로보트는
우리나라를 본격적인 로보트산업국 대도에 진입시켰으며,
값비싼 부품의 국산조달로 인한 엄청난 수입대체효과와
국내 로보트산업의 도약기반 구축이라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자신감으로 최첨단 산업용 로보트와
인공지능 기술의 자체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1호 인공지능 로보트를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

現代